

광주·전남 '달동네' 살맛나는 마을 만든다

지역위, 14곳 선정 마을별 최대 130억 지원

집수리·노후주택 보수... 복지·문화사업도 추진

광주·전남지역 내 대표적인 달동네들의 주거 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 공모에 지역 내 14개 낙후 마을이 선정됐기 때문이다.

광주에서는 서구 발산마을과 남구 월산동 덕림지구 등 2곳이 선정돼 4년간 국비를 포함해 총 200여억원이 집중 지원된다.

서구 발산마을과 남구 월산동 덕림지구는 양동시장, 전남방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에 인접하고 지리적으로 광주 중심에 위치하고 있지만, 도심공동화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지역이다.

발산마을과 덕림지구는 20~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이 각각 79.6%, 90.7%에 달하고, 무허가 건축물 비율도 각각 20.3%, 15.3%나 된다. 특히 4m미만 불량도로에 접한 주택비율도 각각 66%와 71.3%(남구)로 광주에서 대표적으로 생활여건

이 취약한 지역이다.

서구 발산마을은 '행복공동체가 만드는 별마루 발산마을' 사업을 통해 양3동 437번지 일원에 올해부터 4년간 국비를 포함, 총 70억원을 투입해 집수리, CCTV·가로 등 설치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마을카페 운영, 발산마을 108계단, 주민체육시설 등 일자리, 복지 분야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남구 월산동 덕림마을은 '달뫼(月山)달팽이 문화마을' 사업을 통해 남구 구성로 42번지 일원에 올해부터 2019년까지 총 131억원을 투입해 달뫼마을 골목학교, 골목가이드, 청소년골목조사단, 협동조합 설립 등 마을일꾼 만들기 사업을 비롯한 집수리, 노후주택 보수 등 생활 인프라 개선사업, 골목투어, 달빛골목축제, 노약자 돌봄서비스 등 일자리, 복지, 문화 분야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서구 발산마을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현대자동차그룹에서 마을 주민

■ 낙후마을 개선사업 대상지

광주	서구	발산마을
	남구	덕림지구
	여수	광무동
	순천	금곡동
전남	담양	무정면 평지마을
	곡성	목사동면 구룡리
	보성	별교읍 봉림마을
	화순	동면 북암리마을
	장흥	회진면 선학동마을
	해남	화산면 해창마을
	영암	금정면 청룡리
	무안	동탄면 남천마을
	완도	노화읍 남도마을
	신안	압해읍 마산마을

과 함께 공·폐가를 활용한 예술인촌 조성, 공공미술(벽화)사업 등을 추진중이어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지역도 한국전쟁 1·4 후퇴 당시 피난민으로 조성된 여수시 광무동 달동네, 산비탈 고지대에 자리한 순천시 금곡동 달동네 등 도시 2곳과 저지대에 자리해 호우

시 침수가 우려되는 담양군 무정면, 봉곡사고에 노출돼 있고 상하수도 시설이 없는 곡성군 목사동면 구룡리, 사면 봉곡가 우려되는 보성군 별교읍 봉림리 등 농어촌 마을 10곳이 포함됐다.

화순군 동면 구암지구 탄광촌,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장흥군 회진면 선학동과 해남군 해창마을, 하천 범람과 산사태 위험이 높은 영암군 금정면 청룡리와 무안군 봉탄면, 상수도과 선박 접안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섬인 완도군 노화읍 남도와 신안군 압해읍 마산마을 등도 선정됐다.

한편 지역위는 농어촌의 경우 2017년까지 3년, 도시는 2018년까지 4년의 범위에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국비 70%, 지방비 30%로 정하며 국비 지원은 200가구 이상 지역은 최대 70억원, 100가구 이상 지역은 최대 35억원 등 가구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또 대상 지역에 따라 취약요소와 우선순위를 고려해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한승원 칼럼

나는 글을 쓸 때마다 '이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고 고민한다. 문장이나 주제와 관련된 그 고민은 '왜 나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가' 하는 의심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다시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와 '나는 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로 깊어지기 마련이다. 그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지 않으려고 세상을 깊이 응시하는 비법이다.

순수문학을 하는 삶은 애초에 현실적으로 크게 이익이 되는 삶에 출생하지 않고, 비현실적인 쪽에 출생하는 것이다.

50년 전 내가 아내와 결혼을 할 때, 처남은 큰 예상장을 벌여 성대하게 혼례식을 치러주고 싶다고 했다.

광주에서 사업을 하면서 많은 거래처와 사귀는 사람들의 혼례식에 부조를 했으므로 제법 많은 하객들이 부조를 해주리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런데 나는 처남이 제시한 성대한

문학시장에서 멀어진 대신 전라도의 청정 바다와 산하에서의 느린 천자연적인 삶이라는 프리미엄이 내게 주어졌고, 나의 글 쓸 거리는 훨씬 넉넉해졌다.

문학시장을 버리고 왔지만 나는 서울에서보다 훨씬 많은 소설과 시를 쓸 수 있었다. 현대인의 삶은 서울과 시골이 따로 없는 인터넷 세상이고 글로벌 세상이다. 천지들은 오늘에 와서야 시골에 자리 잡은 나의 안정된 작가로서의 삶을 칭찬한다.

무엇이 오늘의 내 삶을 있게 했을까. 현실적인 이익을 좇기보다는 비현실적인 단순함을 택했기 때문이다.

삶에 있어 그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마다 "왜 사는가"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두 가지 문제를 깊이 고민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왜'와 '어떻게'를 골똘하게 생각한다. 탐욕과 유혹이 눈을 어지럽히는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는 것이다.

길을 잃지 않으려는 몸부림

혼례식을 한사코 반대했다. 처남이 "자네 도둑장가를 드는 것인가?" 하고 역정을 냈지만, 내가 고집을 꺾지 않자 어찌할 수 없이 내가 하자는 대로 했다.

나와 내내는 광주의 중심사에서 그야말로 초췌한 혼례식을 치렀다. 하객은 사진사를 포함하여 일곱 사람뿐이었다.

나는 광주의 한 사립 중학교에서 10년 동안 교편을 잡았는데, 어느 날 사표를 내고 가족을 이끌고 서울로 올라가 전업 작가로 살았다.

친지들은 든든한 직장을 버리고 불안정한 전업 작가의 길로 들어선 나를 우려해주었다. 착실하게 수업을 하기만 하면 정해진 날에 월급이 나오고, 퇴임을 하면 연금이 나오는 안정된 직장을 제발로 견어차고 나선 나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사람으로 여긴 것이었다.

서울에서 20년 가까이 살던 나는 어느 날 문득 고향으로 내려와서 살고 있다. 올해로, 내려온 지 19년째인데, 내가 낙향할 때 친지들은 문학시장인 서울을 버리고 시골로 내려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현실적인 나의 결정을 우려했다.

내가 하는 순수 문학은 목적성을 배제한다. 목적에는 돈과 정치적인 권력과 명예가 포함된다.

서울에서 살 때 한 친구가 펜클럽 서거를 하는데 부회장 자리에 내 이름을 좀 빌려달라고 청했다.

"자네는 이름만 내주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잘 될 것이네." 그렇지만 나는 대변에 "나는 문단 정치에 뜻이 없네. 그 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터이니 찾아보게." 하고 말했다. 그것은 '문단 정치꾼'이 되기 싫다는 것이었다.

소설가는 자기가 쓴 글, 즉 소설로 모든 것을 말하는 사람인 것이다. 나의 소설이란 나의 존재 의미이고, 나의 세상에 대한 발언인 것이다. 나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살아 있는 한 글을 쓸 것이고, 글을 쓰는 한 살아 있을 것이다. 하나는 작가적인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생물학적인 생명이다. 그것은 두 개의 바퀴이다.

하나만 찌그러져도 내 삶은 끝나는 것이므로, 나는 80을 코앞에 둔 나이임에도 꾸준히 고단백을 섭취하고 꾸준히 운동하고, 꾸준히 책을 탐독하고 꾸준히 글을 쓴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잃지 않으려고 어떻게 몸부림치십니까. <소설가>

사람 물리는 빛가람혁신도시

작년 742명→2월말 5219명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인구가 목표치인 5만명의 10분의 1을 넘어섰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빛가람혁신도시 주민등록인구는 5219명이었다. 이는 9개월 전인 2014년 5월 742명의 7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5개의 학교의 빈 자리도 학생들로 채워지고 있다.

유치원 2개교에 315명, 빛가람초등학교에 548명, 빛가람중학교에 188명, 봉황고등학교에 202명, 총 5개교 59학급에 1134명이 재학 중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일자리 창출 최선 다하자"

'광주지역 노·사·민·정협의회'가 24일 담양 금성산성에서 개최한 '2015 사회적 책임실천 선언식'에서 참석자들이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자"며 실천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윤장현 광주시장,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2020년까지 매출 9500억, 고용 2만2000명"

사회적경제발전계획 수립... 성장 생태계 조성 등 4대 전략 추진

광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광주시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다.

광주시는 24일 "오는 2020년까지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해 매출액 9487억원과 고용자수 2만2000명 달성을 목표로 한 사회적 경제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광주지역 총 소득액의 3.2%, 총 고용자 수의 3%다.

지난 2013년말 기준 지역내 사회적 경제조직 매출규모는 723억원, 근로자 고용은 3844명이다.

시는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사회적 경

제조직으로 불리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장애인기업, 마을공동체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선포식에는 윤장현 시장, 조영표 시의회 의장, 김양현 광주고용노동청장, 문상필 전국사회적경제지방의원협의회 상임대표 등이 함께했다.

시는 사회적경제 비전을 '더불어 함께

하는 공동체, 사회적 공유가치 창출'로 설정했다.

오는 2017년까지 550억원을 투입해 4대 전략분야, 18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4대 중점전략은 ▲ 사회적경제 연대 거버넌스 구축 ▲ 사회적경제 성장 생태계 조성 ▲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 ▲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활성화 기반 구축 등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의결 제140611-중-59153호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드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극선 맞은편 노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상무지구 방면
운암동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의결 제150204-중-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